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별주부전에서 용왕님의 만병통치약으로 토끼간이 처방될 만큼 간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체내에서 섭취된 물질의 대사, 배설, 및 해독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간에서 발생하는 질환 역시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병으로, 급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증과 간암이 있다. 이 중 간염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B형바이러스성 간염왕국으로 유명해져 있는 덕택(?)으로, 일반 대중에게 많이 계통된 것 같으나, 술이나 약물 혹은 독소에 의한 간염은 비교적 경시되어 온 듯하다. 그러므로 이번 지면을 이용하여 약물과 술로 인한 간 장애를 소개할까 한다.

약물에 의한 간장에는 의약 품의 남용이나, 화공약품 또는 버섯독소 같은 화학물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데 약물의 대사 과정에서 직접 간장애를 일으키는 중독성 간장애와 약물과 민중에 의한 간장애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투여된 약물의 용량에 비례하여 간손상

을 재건하는 자재로서 고단백, 고칼로리 식사를 하고, 안정을 취하여 간을 쉬게하고 간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구역질이 심하여 식사를 못 할 경우에는 포도당주사로 칼로리를 대신 공급하여야 한다. 예후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인약물의 종류에 따라 부증상에서 치명적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다음으로 알코올로 인한 간장애를 간단히 소개한다. 술은 오랫동안 많이 마실수록 대개

결절등으로 인하여 간조직 구조자체의 비가역적 파괴가 초래되었을 때 정의될 수 있다.

알코올과 간장애의 인과관계는, 알코올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 음주에 동반되는 영양부족 또는 식이성인자의 불균형, 알코올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 및 개인의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대개 40g 정도의 알코올(소주 1홉, 맥주 1천cc)을 수일간 먹으면 지방간이 3일 내에 생길 수 있다. 지방간은 술을 끊고 영양식이를 하면 4~8주 정도에서 회복될



金官暉

<仁濟醫大內科 교수>

成人病으로서의 만성肝臟病

고단백·고칼로리 식사와 안정을 취하여 肝을 쉬게하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도록 해야

도 심해지고, 투여된 대상에게 동일한 병변이 발생한다. 또한 약물의 종류에 따른 대개 특징적인 간조직의 형태학적 변화를 초래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발병의 예측이 곤란하며, 간손상은 투여량에 평행하지 않고, 또 특정한 사람에서만 발생하며, 다양한 간조직변화를 초래하며, 발진, 관절통, 발열, 호산구증가증 등과 같은 간외증상을 대개 수반한다.

또한 약물에 의한 간장애는 급성 간손상과 만성 간손상으로 병변이 발현되며 유일한 임상증상으로 간염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장기의 손상이나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임상증상으로는, 활달과 간기능 저하로 인한 무력감, 식욕 저하, 오심 등을 들 수 있고, 무증상으로 지낼 수 있는 경우에서 치명적 간부전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진단방법은 일

반적으로 알려진 간에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중요하고, 임상소견 및 생화학적 혈액검사에서 간염소견과 간조직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바이러스성 간염 표시자 검사를 통하여 바이러스성 간염과 감별, 혹은 약물중독성 간염과 바이러스성 간염의 중복된 경우의 확인이 필요하다. 치료방법으로는 극소수 경우에서 원인이 된 약물의 길항기능을 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원인이 된 약물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 바이러스성 간염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支持的 치료, 즉 손상된 간

간염은 알코올에 의하여 간세포의 특징적 형태의 간세포파사와 퇴행성변화와 세포주위의 섬유화 및 염증변화가 있을 때 정도와 기간에 비례하여 간손상을 초래한다. 알코올성 간장애의 종류로는 지방간, 간염 및 간경변증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간은 영양실조, 임신에 의한 합병증 또는 대사성 질환 등에 의하여 유발될 수도 있고, 간조직검사시 5% 정도의 간세포가 지방을 함유하거나 1백g의 간조직에서 5g 이상의 지방성분이 있을 때 정의된다. 알코올성의 되고, 알코올성 간경변증은 섬유성 경막과 퇴행성 및 재생성

수 있고, 간경변증으로 진행하지 않지만, 알코올성 간염이 될 정도로 과음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외 임상증상 및 치료는 약물에 의한 간장애와 동일하다.

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할하고 생명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간의 기능은 웬만한 손상으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간손상을 초래하고 치명적 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성분이 확실하지 않은 한약, 보약 등을 의사의 처방 없이 남용하거나, 과도한 음주, 특히 연일 계속적인 음주를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확실하지 않은 한약, 보약 등을 의사의 처방 없이 남용하거나, 과도한 음주, 특히 연일 계속적인 음주는 肝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사진은記事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소주1홉, 맥주1천cc의 양을
수일간 섭취할 경우
3일내 지방간 발생위험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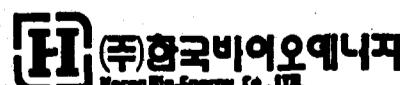
한국에도 이제 맥주효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맥주효모제품

(제조허가번호: 보사부 제27호)
(품목허가번호: 보사부 제1호)

- 체질개선 식품 전문생산업체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43층

- 서울 강남지역: 548-0264-3143 • 서울 경기동부총판: 295-3334-0928 • 서울 경기서부총판: 662-0874, 663-8836 • 서울 경기남부총판: 679-8107
- 부산: 23-5496, 5497 • 대구: 253-2338, 2339 • 광주: 232-7393, 5337 • 예산: 2-6656 • 대전: 255-0144 • 전주: 85-8640

맥주효모는

- 간장괴저예방인자
- 혈당조절인자(GTF)
- 발암억제인자
- 위장강화인자
- 고혈압조절인자

를 갖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마® 는

맥주효모의 고유한 쓴맛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제(錠劑)로 만든 영양등식품입니다.

(주) 한국비어오에너지는

맥주효모제품 리포마®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궁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